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윤 매 옥 (본회 전라지부장, 전주 예수병원 호스피스 실무책임자)

무더운 여름날 내리쬐는 햇빛의 열기로 빨갛게 상기된 얼굴과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힌 몸으로 호스피스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과의 시간은 의미 있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호스피스 사역에 몸을 담은 지 9년의 세월이 어느덧 지났다. 지난 9년 동안의 회로 애락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생활보다도 참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중히 여기라고 하셨던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라 하면 대부분 죽음을 연상하며 접근하기 두려운 단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지만, 나에게는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안겨준 축복의 선물 보따리인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내가 섬기는 병원은 산재형 호스피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 후 가정 호스피스까지 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월 1회의 호스피스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활동을 계획하지만, 실제적인 활동은 호스피스 전문간호와 40여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돌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아 왔다. 특히, 죽

음의 순간이나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사별 가족의 만남에서 그들의 더욱 강한 슬픔 표현이 다가 올 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음을 느껴본다. 낮 동안 2~3시간 정도 비의료적인 돌봄으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지지는 그나마도 24시간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며 우리 병원의 꽃이기도 하다. 그리고 단 한사람의 호스피스 간호사인 나에게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 주기에 하루가 너무나도 짧고 아쉬운 시간들이다.

때로는 공중의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그들의 고통을 싸매 뿔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환상에 잠겨 보기도 한다. 이제 나의 갈 길은 이 지역에서 불치의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이다.

얼마 전부터 나는 내과병동의 수간호와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주요한 내과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 병동이라서 무척이나 복잡하고 바빠기 때문에 그 일 한가지만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호스피스 업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미숙하나마 지금까지 더듬어 오른 이 길을 이제

는 두 발을 내딛고 걸어야 할 때에 다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사 호스피스 사역이 이 지역에 뿌리내리어 사랑의 안식처로 울창하게 넉쿨지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대로 정원을 가꾸어 보는 게 나의 꿈이기도 하다.

호스피스 환자들의 대부분은 내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병원 전체에 산재되어 있고 일반 환자들 틈에 끼어서 순수한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 병동에 가급적 호스피스 환자를 모으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를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과병동의 수간호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를 겸직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간구 했다. 그렇지 않으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기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는 결과를 가져 왔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는 시작되었다. 기도와 함께 30~40분에 걸쳐 업무를 인계 받은 즉시 나의 발길은 각 병실로 옮겨진다.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하며 밤새동안 있었던 그들의 호소를 들으며 나의 작은 격려의 손길 앞에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는 듯 미소를 지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끼곤 한다. 아침 9시쯤 전화가 걸려왔다. 다른 병동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가 소천 했다는 내용이다. 원목실 식구와 함께 즉시 달려가 예배를 드렸다. 일주일 전 병상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였던 환우는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 죽음

후 3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두려움도, 불안도, 불평도, 저주도 없어 보였다. 천국에서의 만남을 약속하자는 인사로 시신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는 엄마를 지켜보다 못해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의사를 찾아보기 위해 새벽녘에 의사 숙소를 헤매고 다니다 그냥 돌아 왔다는 딸의 슬픈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호스피스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돕는 일이다. 영적인 기갈 속에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하는 구원의 말씀 듣기를 갈급해 하면서 육체적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손발이 되어주며 사랑의 안내자가 되어야 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책임이 아니겠는가?

호스피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여, 우리의 작은 두 손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간구해 봅시다. 죽음을 가까이 앞둔 위대한 자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붓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맞을 나는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라”

(전도서 7:2)